

'자기주도학습' 부모가 먼저 배우고 실천하라

자녀 상황 정확히 파악 후 교육방법 모색 학습동기 부여, 진로목표 설정에 큰 도움

겨울방학이 끝났다. 새 학기를 맞은 설렘과 함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중이다. 임시도 한발 가까워졌다.

하지만 자녀의 성적은 늘 제자리인데, 학교·계열 등 선택해야 할 것은 많아져 학부모 마음을 한층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해야 자녀 역시 새로운 학기를 신나게 준비할 수 있

다. 신학기 시작과 함께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실천방안을 알아봤다.

◇자녀 스스로 진로목표 찾을 수 있게 기회줘야=자녀 스스로 진로 목표를 찾고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진로목표는 자녀가 얻고자 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다짐이자 꿈일 수도 있다. 진로목표가 확실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적인 학습 동기 역

시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실제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의 '진학예측진단검사'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명확히 알고 이에 맞는 진로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82%가 매우 강한 학습동기를 보였다.

강한 학습 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학업 부담감을 이겨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도 자기주도학습 필요=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자기평가를 거쳐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기주도학습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부모 자신은 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데 서툰 경우가 많다.

각종 입시설명회와 정보처를 바쁘게 쫓아다니는 등 '주도적 학습'을 하는 듯 보이는 부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자녀에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외부 자극에는 민감하지만 자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할 경우, 남들이 좋다는 교육방식을 무조건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자녀에게 맞는 교육방법

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학습성향, 인성의 특성, 학업성적, 선호계열 등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보고 평가 후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차례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 끝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사이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부모의 혜안이 생길 것이다.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 윤동수 이사는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 설정과 함께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신대 한의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3년 연속... 스터디 프로그램 적극 참여 결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이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 3년 연속 한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을 기록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학장 신영일 한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보건직업시험위원회가 시행한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동신대 한의학과 재학생 50명이 응시해 50명 모두 합격함으로써 2011년부터 3년 연속 100% 합격률의 신화를 이뤘다.

지난해 제67회 한의사 국시에

서는 재학생 51명이 전원 합격했으며, 2011년 제66회 한의사 국시에 응시한 재학생 47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한 바 있다.

신영일 한의과대학 학장은 "동신대 한의학과는 전국에 3개의 부속병원과 1개의 협력병원을 갖추고 있어 학습 환경이 우수하며, 학생과 교수들이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시험에 준비해온 결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과기원, 차세대 리튬전지 개발 나선다

독일항공우주연구센터와 핵심연구 기술 교류 협약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김영준)이 독일항공우주연구센터(DLR)와 손잡고 차세대 무공해 리튬전지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 기술 교류에 나선다.

GIST 노벨에틀(Nobel)측매 연구센터와 DLR 열역학기술연구소는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DLR 열역

학기술연구소에서 두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연구 기술을 공개·교류하기 위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벨에틀측매 연구센터 이재영 교수팀과 열역학기술연구소의 안드레아스 프리드리히 교수팀은 '미래형 고(高)출력 리튬전지'

개발을 위한 기술 공유 및 연구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리튬전지는 소형 전자기기 전원공급용 등으로 사용되지만 용량과 출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한·독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리튬전지의 에너지 및 전력

밀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켜 전기자동차 전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성과 같은 중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독 연구팀은 지난 10여년간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두 연구팀은 현재 7차 유럽연합 FP7 연구과제(과제명 IMPACT)도 함께 수행하며 미래 자동차의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공해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GIST 이재영(환경공학부)교수는

"연구 기관 사이의 기술 공유와 비밀 유지는 과학계의 최신 흐름인 융합과 협력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분야 최고 연구진이 생산적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DLR은 32개 연구소에 7000여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독일 항공·우주·에너지·국방 분야 최대 연구소로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와 함께 독일의 3대 연구소로 꼽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텔리스 김영호 대표 모교 발전기금 동신대 관광경영학과에 5000만원 기부

텔레마케팅 전문회사인 (주)텔리스(대표이사 김영호·오른쪽)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학과장 송경웅)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졸업생인 김영호 대표이사는 최근 동신대를 방문, 관광경영학과와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 대표는 "최근 모교의 발전상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발전기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열정과 패기를 키우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또 "평소 회사 이익의 사

회 환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도교수였던 송경웅 학과장의 권유를 받고 흔쾌히 결정했다"고 밝히고 "저의 작은 실천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진에도 동사무소와 연계해 매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불우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의과대학 학위수여식

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대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최근 대학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졸업생들이 휴대폰

서영대학 2012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서영대학교(총장 김진수)가 2012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서를 받았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등 9개 기준과

27개의 세부기준, 72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인증원 평가위원으로부터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를 받고,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최종 관점심의로 확정평정을 받게 된다.

기관평가인증은 2014년도부터 정부의 행·재정지원사업에 평가인증 결과를 연계시켜 선진화된 대학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경쟁력 제고와 교육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약대생 62명 전국 최초 약무실습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광주 시내 약국에서 한달간 약무실무실습을 진행했다.

약학대학은 지난 1월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재학생 62명이 광주지역 56개 약국에서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습에 앞서 약학대학은 전남대 약대 출신 약사를 비롯해 타대학 출신까지 총 84명의 약사가 참여한 가운데 약무실무실습을 위한 프리셉터교육을 실시, 후배들의 실습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이용복 학장 등 보직교수들이 재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약국 56곳을 방문해 '약무실무실습지정약국' 지정과 전달식을 갖고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교통,광고효과최고!

임대층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 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빌딩상기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직없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군정발) 광주 시군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알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마크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중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